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

수실 파큐렐
(네팔·2010년 수상자)

아딜 라만 칸
(방글라데시·2014년 수상자)

6



네팔의 국왕인 가렌드라(Gyanendra)가 지난 2006년 4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해산을 선언, 인권운동가들이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의회 해산을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수실 파큐렐 제공>



지난 2011년 5월 17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아시아포럼'에 참가한 아딜 라만 칸이 '테러와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아딜 라만 칸 제공>

5·18은 군부독재 맞선 저항운동 네팔 민주화 위한 든든한 버팀목

“지난 1980년 5·18 당시 BBC에서 보도된 5·18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광주) 청년들은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다.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사는 조국의 청년들도 5·18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고 있다.”

네팔 인권운동가 수실 파큐렐(64·Sushil Pyakurel)씨는 지난달 22일 광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5·18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TV에서 본 뉴스는 독재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강조했다.

네팔시민인권지원센터(INSEC) 설립자인 그는 자국에서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군부독재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네팔은 현재 절대왕정 시대를 마감하고

법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과도기에 놓여 있다. 민주·인권수준도 걸음마 단계다.

이는 부당한 정권에 의해 억압받는 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그는 지난 2006년 네팔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재직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가 군부에 의해 감금 당하는 등 위험에 직면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자국민을 위한 민주화와 인권 향상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권력을 둘러싼 학살만행 등 네팔 절대왕정의 비민주적 폭압 통치에 맞서면서 각종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헌신한 점이 인정돼 지난 2010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이 쉽지 않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뤄낸 5·18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5·18에 참여한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 5·18은 군부독재에 맞선 영광스러운 저항운동이었다”며

“네팔은 민주·인권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머지않아 한국의 민주주의를 잇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부 세력의 왜곡과 관련해서 “내가 아는 5·18은 한국 국민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며 “북한이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군 개입 주장은 터무니 없는 말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피력했다.

그는 향후 자신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5월 항쟁을 접한 뒤 민주·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도) 5월 정신을 이어받아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젊은이에 용기 준 5월 정신 계승 민주주의·인권 향상 위해 싸울 것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전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5·18은 방글라데시 젊은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인권과 사회정의의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다.”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 아딜 라만 칸(54·Adilur Rahman Khan)씨는 지난달 24일 광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5·18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탄압에 저항하는 몸부림 없이는 민주화 실현은 불가능하다. 5·18은 한국의 민주화를 꿈꿨던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 때 인권운동을 시작한 뒤 방글라데시의 주도적 인권단체인 ‘오디카’(Odhikar)를 설립, 인권 향상 운동 등을 하고 있다. 그는 1982년 2월 14일 다카대(Dhaka University) 학생들과 함께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운동을 이끌었

다. 그는 특히 사법 절차를 무시한 사형집행, 법 집행기관의 고문 등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가 감금된 뒤 62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남아시아 지역의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었다.

그는 현재 자국에서 ‘오디카’를 회원들과 함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선 인종운동가 억압과 인권단체 폐쇄, 반정부인론 제재, 반체제인사 감금 등 비민주적인 행태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월 5일 실시한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 우리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끊기 상태”라며 “지난해 받은 광주인권상 시상금으로 단체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몇 개월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

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해온 민주·인권활동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이후 민주화를 외치다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근 정부의 지속된 탄압은 잠자는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있다. 5·18도 깨어 있는 광주의 젊은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이었다”며 “5·18은 한국 민주화의 매우 중요한 역사다. (우리도) 조국 방글라데시에 민주주의 복원과 인권 향상을 위한 싸움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와 인권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둘로 나눠 생각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곧 인권과 직결된다”며 “방글라데시도 5월 정신을 본받아 조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노예 해방정책 이끌어 낸 인권단체

네팔 ‘시민인권지원센터’

네팔의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는 지난 1988년 인권운동가 수실파큐렐(Shushil Pyakurel·사진)과 프라카쉬 카플리(Prakash Kaphley)가 설립했다. 1984년 수실 파큐렐은 초등학교 교사 시절 ‘인권보호를 위한 포럼’(FPHR)을 동료 교사와 개최한 적이 있다. ‘INSEC’는 네팔의 인권에 관한 단체·기록·역사에 대한 연구와 공공 교육, 정권 활동 등을 통한 감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국민에게 차별 없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네팔의 인권 단체로써 20년 넘게 인권과 사회 정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 단체는 지난 1989년 카트만두 계곡의 손수레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찾기 위한 캠페인, 교육 등으로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갔다.

현재 이 단체의 대표적인 활동은 불가촉천민·여성·카마미야(노예계급)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1991년 노예(카마미야 계급) 철폐운동을 펼쳐 정부로부터 노예 해방정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 단체는 현재 불가촉천민들이 식수원에 접근할 수 없게 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우유를 사먹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차별 대우에 대한 금지운동을 펴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1992년부터 아동·범죄희생자 등에 대한 인권연감을 출판, 전세계에 배포하는 등 네팔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알리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인권탄압 철폐 등 시민권리 보호 앞장

방글라데시 ‘오디카’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오디카’(Odhikar)는 지난 1994년 10월 설립됐다.

이 단체는 인권운동가들이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설립자인 아딜 라만 칸(Adilur Rahman Khan·사진)은 이 단체의 사무총장이다. 오디카는 벵골어로 ‘권리’를 뜻한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정부의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1990년 군부독재 몰락 이후 민주화의 과도기에 놓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국가 인사들에 대해 구금과 고문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당시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권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 단체는 불법선거 운동 감시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디카’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에 사무실이 있는데, 인권운동가를 양성한 뒤 전국 각지에 배치해 민주화 및 인권 향상운동을 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방글라데시 취약계층은 여성·아동·소수종교 및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인권탄압을 당하는 취약계층들이다. 특히 취약계층은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단체는 ‘모든 시민이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 탄압 철폐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진·통·신·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계림동 ● 한화생명 ● 주유소 ● 교계 주차장
구.한미쇼핑 ● 북경랑 한의원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 227-7575